

대학 교양중국어와 고등학교 중국어 공교육의 미래지향적 연계 시스템 구축 담론

이 영 월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부교수)

◆ 국문초록

디지털 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기술 발달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교학점제와 연계 가능한 중등 단계에서의 온라인 교육체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고등 교육과의 연계성 및 교육격차 문제 또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사회 각계의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 분야 역시 미래학교와 새로운 인재 교육에 대한 끊임없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공교육의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대학 교양중국어와 고등학교 제2외국어로서의 중국어 공교육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평생교육의 원리와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각 영역 간 연계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당위성 및 실행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4차 산업혁명시대, 한국 대학 교양중국어, 교수법, 고등학교 중국어, 공교육 연계

1. 서론

중국어는 UN이 지정한 세계 6대 공용어 중 하나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이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특히 점점 커지는 중국의 G2국가로서의 위상과 미래지향적 역할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의 중국어 학습교육열은 세계적 수준으로 치달고 있

다. 영어 버금으로 가는 중국어교육은 지금까지 공교육으로서, 또는 사교육의 형태로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중·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있는 중국어 학습자들과 대학의 중국어 전공자, 유·초등학교 어린이 그리고 기업 내 직장인들까지 중국어 학습의 영역 대는 확대되어 가고 있다. 중국어는 이미 전공과 교양의 경계를 넘어서서 다양한 니즈가 있는 학습자의 필요에 따라 배우는 국제언어가 되어가고 있다.

평생학습은 21세기의 대표적 화두이다. 평생학습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성요소는 학습의 영역, 학습결과 인정 및 그 가치들을 포함한다. 고교학점제와 연계 가능한 중등 단계에서의 온라인 교육체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사회 각계의 노력이 교육 분야 특히 공교육의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보고는 대학 교양중국어와 고등학교 제2외국어로서의 중국어 공교육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중국어 교육의 연계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당위성 및 그 가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고등학교와 대학의 중국어 공교육의 현황

우리나라의 공교육¹⁾은 헌법에서 공교육의 제도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교육 제도는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여기에 평생교육의 영역을 연결하고 있다. 이러한 공교육의 체제는 1997년 교육법제의 개편을 거쳐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

1) 공교육(公教育, public education)이란 교육학적으로 본시 “국가나 지방 교육 당국에 의하여 설립되어 운영 관리되는 학교교육을 뜻하는 것으로 종교단체 혹은 민간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과 구별할 때 쓰이는 개념으로 보편적으로는 초·중등학교 교육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공교육 [公教育]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을 근간으로 하는 교육관련 법체계에 제도화되어 있다²⁾.

사학 의존도가 높아진 21세기 한국의 공교육은 보편적으로 공적 준거와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교육 기회의 확대와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에 국가가 개입하게 되면서 사립학교의 교육 또한 공교육으로 개념이 확대 및 적용되었다.

1. 고등학교의 중국어 교육 현황

초등학교의 경우, 현재 전국 74개 사립초등학교 중 중국어과목을 정규교과에 편성한 학교는 34곳으로 45.9%를 차지하고, 방과 후 학교 중국어 프로그램까지 포함하면 49곳으로 66.2%를 차지한다. 교육부 공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제2외국어 프로그램 1,714개 중 중국어 프로그램이 1,456개로 약 85%를 차지한다³⁾고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재 일반계고등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제2외국어로서의 중국어 교육과정은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학습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상승하는 비율을 보이고 있다. 김현철(2015, 2018)에 의하면 2018년 기준, 3,032개의 중학교 중 약 816개 학교에서 중국어과목이 개설되고 있으며 수강생은 약 37만 정도 된다. 1,457개의 고등학교 중에서는 약 736개의 학교가 중국어Ⅰ 교과목을 설치하여 1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중국어를 배우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약 565개의 학교, 약 5.7만 명 이상이 중국어Ⅰ, 2 과목 즉 2학기 1년을 배우고 있다. 학교 교육과정상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의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2학년 과정에서 중국어Ⅰ을 1년간 주 6단위를 이수하고,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의 경우 3학년 심화과정에서 중국어Ⅱ을 주 2~3단

2) 정규 학습 과정 외에도 사교육을 선호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사교육을 통한 개인적인 중국어 선행학습에 관한 논의는 본고에서는 논외로 한다.

3) 김규진(2012:52-54); 정윤철(2013) 참조.

위 이수한다. 외고의 경우, 1학년 입학과 동시에 매 학기 8단위씩 3년간 48단위를 이수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어교육열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면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조항근(2014:238-239)은 우선, 가장 먼저 대입수능평가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어의 수업시수가 축소되고 중국어Ⅱ가 점점 폐강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입수능에서 존재위기를 맞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은 외국어 교과로서의 정체성까지 상실되어가고 있다. 때문에 1학년 학습과정 초기의 중국어에 대한 높은 학습 의욕은 2학년 2학기말이 가까워지면서 점점 낮아지고 그에 따라 수업 분위기 역시 침체되어 있다. 대입수능이라는 현실적 목표에 집중하여 중국어 수업을 포기 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다. 중국어 선택의 가장 큰 이유가 “장래 자신들의 진로 또는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어학습의 의욕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학생 개인의 문제로만 돌리 수 없는 현실이다.

2. 대학 교양중국어 교육의 현실

현재 우리나라 360여개 대학(전문대 포함)에서 중국어 관련 학과를 설립한 대학은 160개이다. 대학에서는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으로 중국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김선아, 2015), 많은 대학(또는 단과대학이나 학부)에서는 원어민교수를 다수 채용하고 중국어를 필수 교양과목⁴⁾으로 지정하는 등 중국어교육을 다각도로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비전공자를 위한’ 교양중국어⁵⁾ 관련 수업을 필수 교양교과목

4) 박혜원(2010:12),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서강대, 한국외국어대, 이화여대 등 다수의 대학에서 중국어를 핵심교양, 학문의 기초 전공 관련 교양, 학부 필수교양, 기초 필수교양 등으로 편성하여 실질적으로 졸업을 위한 부분 필수 과목이 되어 있다.

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최근 몇 년 동안 46개의 대학이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비전공자를 위한’ 교양중국어 관련 수업을 부분 필수 교양교육 과정으로 되고 있다(이효영, 2017, 김현철, 2018). 많은 대학들에서는 중국어를 전공자들을 위한 중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비전공자 학생들에게도 교양중국어 수업을 개설하여 중국어 학습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중국어 학습자의 배경은 다양해지고 있다.

필자는 최근 5년간 10회 정도 K대학 교양중국어 수강생을 대상으로 매 학기 초 학습자 요구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기당 평균 50명 내외로 총 5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설문조사에 응하였다. 500여 명 중에서 대학에서 중국어를 처음 학습한 학생은 30% 밖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60~70%의 학생들은 중국어를 선행학습 한 경험자들이다.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응답자가 50%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는 중국 유학이나 연수, 학원, 학습지 또는 중국인 친구, 독학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중국어를 학습하였다. 그러나 입문 수준의 대학 교양중국어 교육과정은 학업의 성취도나 만족도에 있어서 이미 상당한 실력을 갖춘 중국어 선행학습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공교육과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 현상은 학습자들의 학습동기와 수업목표 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대학의 교양중국어은 교수자 재량으로 교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내용은 블랙박스처럼 되어 있다. 기초 입문 단계의 교양중국어는 고등학교 제2외국어로서의 중국어 교육과정과 큰 차이 없이 기초나 초급수준이다. 고등학교 공교육 학습과정과 대학의 교양중국어 교육내용이 중복되거나 반복되고 있는 이러한 비효율적인 현상은 이미 오래도록 지속되어 왔다. 대학은 학생들에게 만족도 높은 콘텐츠를 제공해주지 못하는 것이고, 학생들에게는 값비싼 등록금을 허비하거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5) 교양중국어의 과목 명칭은 대학마다 상이하므로 본고에서는 기초중국어, 또는 초급중국어로 대신한다.

III. 중국어 공교육의 연계성 담론

교육의 연계성과 관련된 이론으로는 R. W. Tyler(1984)가 대표적이다.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는 연계성은 “학년 간 또는 학교급 간의 교육내용들이 계속성과 계열성의 원칙에 맞게 조직된 상태를 가리킨다⁶⁾”고 하였다. Rivlin과 Schueler(1943)은 “연계성은 교육 프로그램의 모든 측면이 학생들의 계속적이고 누적적인 성장과 발달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 오도록 공헌하는 것을 의미한다.⁷⁾”고 정의하였다.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교육의 연계성이란 교육이 조직의 단위를 초월하여 계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교육내용이 수평이나 수직적으로 확대되도록 조직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의 연계성에 비추어 본고는 대학의 교양중국어와 고등학교 제2외국어로서의 중국어 교육과정의 여러 내용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수평과 수직적 상호 연계성을 발견하고 두 집단 간 교육의 효율성과 지속발전 가능한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본고의 연계성 담론을 4차 산업혁명시대 중국어교육의 미래지향적 연계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및 그 실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6)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2007:467) 참조.

7) 김지연(2007:12-15) 재인용.

1. 4차 산업혁명시대 중국어교육의 미래지향적 연계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담론

1) 대학의 미래지향적 담론

앞서 논의한바 우리나라의 중국어 교육열은 세계적 수준이며 전 국민적이다. 중고등학교와 대학의 공교육을 제외한 중국어학습자는 유치원⁸⁾이나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한 자발적 학습자뿐만 아니라 조기중국유학자, 사설기관⁹⁾을 통한 중국어 학습자들을 대학의 교양중국어 수업에서 쉽게 목격된다. 우수 대학에 어린이중국어교육이 점차 독립된 하나의 중국어교육의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정이다.¹⁰⁾ 국외기관인 중국 교육부 산하 ‘國家漢辦’이 주관하고 있는 서울공자아카데미(학원)를 통한 중국어 교육 서비스는 이미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 내 직장인과 퇴직 후 취미로 배우는 성인학습자까지 중국어 학습자의 영역은 절대적인 수치나 차지하는 공간 면에서 평생교육의 사회적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차 산업혁명을 거쳐 지금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초연결, 초지

-
- 8) 미취학어린이 중국어교육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같은 유아교육기관의 외국어 특화 프로그램과 사설교육업체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들에는 하이니하오(www.hinihao.co.kr), JRC화상중국어(www.phonejrc.com), 샬롬차이나(www.shalomchina.net), 씽씽에듀(<http://xingxingedu.com/>), 헬로중국어(www.hcedu.kr), 차이나키즈(www.chinakids.kr), 까오씽 차이나(www.gaoxing.co.kr), 하오넷(www.haonet.co.kr), 샤오팡(www.shaopang.com) 등이 있다. 정운철, 김민영(2015:198)참조.
- 9) 사설 중국어교육 기관(오프라인 및 방문교육 포함)으로 2015년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나타난 서울시 사설 중국어 학원만도 총 279개로 조사되고 있으며, 그 중 전화중국어, 온라인 중국어, 또는 이미 없어진 사설학원 등을 제외하면 227개로 집계된다. 김현철(2015, 2018)참조.
- 10) 대학에서의 어린이중국어교사양성과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고려사이버대학교 등 대학에서 어린이중국어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이 개설되었다.

능의 대변혁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이다. 미래학자들은 인공지능의 급성장, 과학과 기술의 대변혁은 미래가 아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로서 지금과 같은 교육방식은 산업과 사회의 발전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 이대로 간다면 미래 사회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세계석학들은 경고한다.¹¹⁾

21세기는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외국 대학들에서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혁신을 가르치는 미국의 온라인 대학 ‘미네르바 스쿨(Minerva School)’, 2011년에 설립된 ‘미네르바 스쿨’은 녹화된 강의를 듣는 기존의 사이버 대학이 아니라 모든 시스템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완전 온라인 캠퍼스’ 대학이다.¹²⁾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은 19세기에 만들어진 방식으로 정보 보급의 역할이 대부분이다. 아직도 경쟁과 서열화로 일관된 모습이며, 고등학교 교육은 오로지 명문대 진학으로 편향된 구조이다. 상대평가의 사회적 시스템은 경쟁을 부추기고 서열을 낳으며, 서열에서 밀린 학생들은 압박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학교생활의 행복지수는 바닥이다. 우리의 교육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에 대한 답은 여전히 불확실하다¹³⁾.

현재 우리가 감히 상상해 볼 수 있는 미래학교의 모습은 캠퍼스가 없고, 교실이 없고, 교재가 없고, 시험도 없으며, 어떤 과목은 교수 선생도 없고 나아가 현대 개념의 대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도 크게 빗나가지 않는다¹⁴⁾고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현재 태블릿 혹은 노트북,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교육과 학습에 불편이 없다.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대로 ‘서울대’나 ‘하버드’에서 공부할 수 있으며, 모든 과목이

11) EBS TV 『대학 교육의 미래』 독일 헤센주 학술 장관.

<http://www.ebs.co.kr/tv/show?prodId=6785&lectId=10827387> 2018.2.4.

12) EBS TV 2015.10.26. 『혁신을 가르치는 온라인 대학 ‘미네르바스쿨’』

13) EBS TV 2018.2.3. 『대학교육의 미래』

14) EBS TV 2015.10.26. 『혁신을 가르치는 온라인 대학 ‘미네르바스쿨’』

학력에 맞춰 교과서를 제작하고 교수와 학생이 실시간 즉각적인 질의응답이 가능한 플랫폼이 구축되고 있다.

2) 미래지향적 학생 담론

2015년 개정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¹⁵⁾은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 사람”,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세계와 소통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이며,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학교의 자율성 확대와 더불어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세계인의 양성”이 기본방향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어교육은 국가의 경쟁력 차원에서 현재보다 미래에 더 필요한 교육이다.

한편, 2000년대 전·후반에 태어난 우리의 대학생들과 중·고등학생들 학생들은 이런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들이다.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화와 발달로 전 세계 산업구조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으니, 이를 협의의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다. 현재 전 세계의 30억 인구가 현재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포노 사피엔스(Pono Safians)’, 그리고 디지털 네이티브들이라고 부른다¹⁶⁾.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하루 평균 5시간을 공부하는 학생이자 매일 2시간은 인터넷에 접속하는 네티즌이기도 하다. 이들의 주변에는 초고속 인터넷이 깔려있고, 스마트폰이 보급되어 있다. 국적을 불문하고 사람보다 기술과 더 많이 상호작용을 많이 하고 기술 친화적인 것이 공통점이다. 우리의 학습자들은 모두가 디지털 네이티브들이다.

디지털 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기술 발달이 사회 전반에

15)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http://ncic.go.kr>

16) EBS TV 2019.1.7, 『디지털 네이티브의 학교를 열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치원에서부터 초중등, 그리고 대학, 나아가 평생 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환경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학생들의 학습참여도 및 만족도, 교수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능동적이고 협력적인 학습 상황, 대학의 교수·학습지원 체제 등 “교수·학습 역량”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한 대학교육의 질적 제고 및 교수학습 전략 모색이 시급하다.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사회 각계의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 분야에서도 미래학교와 미래사회를 대비할 새로운 인재 양성에 관한 화두는 지속적으로 떠오르고 있다.

3. 대학과 고등학교 중국어 공교육의 연계 시스템 구축 가능성 담론

1) 중국어 교육목표 기준의 연계성

중국 정부의 國家漢辦과 孔子學院總部에서는 전 세계 외국인 중국어 학습자 및 교수자를 위한 중국어교육의 목표, 교육과정 설계, 교사양성, 교재편집, 능력평가 등 세부 요목을 위한 공식적인 기준으로 『國際漢語教學通用課程大綱¹⁷⁾』과 『新HSK大綱¹⁸⁾』을 제정하였다.

2008년에 제작된 초판 『國際大綱』과 2009년에 제정된 『新HSK』은 『유럽참조공통기준(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¹⁹⁾』을 토대로 제정된 것으로 2014년과 2015년 각각 수정본을 거쳤다. 2008년 초판 國際大綱은 전 세계적으로 중국어 학습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중국어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국제 중국어교육 기준을 확립한다는 목표 하에 중국정부가 최초로 제정하였으며, 2014년에 이를 다시 수정·보완하였다. 2009년에 제정된 新

17) 이하 『國際大綱』으로 약칭함.

18) 이하 『新HSK』로 약칭함.

19) 이하 『CEFR』로 칭함.

HSK는 2008년도에 제정된 國際大綱의 교육과정과 결합된 평가 요목 기준을 참고로 하였으며, 2015년에는 新HSK 수정판을 새롭게 출시하였다. 때문에 두 기준은 내용상 상호 보완적 관계로 매우 밀접한 연계성이 있다²⁰⁾.

國際大綱과 新HSK 이 두 기준은 차례로 제정 및 수정되면서 중국어 교육요목의 등급체계의 상호 연계성 가운데 일부 세목은 변화가 있었다. 가장 큰 연계성은 國際大綱(2008)의 5등급이 國際大綱(2014)에서는 6등급으로 조정하여 新HSK의 등급과 일치시킨 것이며, 세부 항목의 변화는 또한 각 등급별 체계 속에서 한자, 어휘, 문법, 화제 등 언어지식을 새롭게 수정 보완함으로써 두 기준의 연계성은 한층 더 강화되었다(위수광, 2018).

國際大綱과 新HSK 신규 두 기준이 중국어교육의 교육 설계 전반과 제반 평가를 위해 공통으로 참고의 기준 및 그 연계성을 형성할 수 있는 토대는 그것들의 공통된 원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國際大綱(2014)의 원칙은 바로 과학성, 실용성, 적절성, 통용성, 탄력성이다²¹⁾. 新HSK는 ‘평가와 교육, 학습의 상호 촉진 및 결합관계(‘以考促教, 以考促学, 考教结合’)의 원칙 하에 평가와 교육이 상호 연계성을 지니며 객관성, 정확성을 평가의 기준으로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이 목표가 분명하고 계획적이며 효율적으로 중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였다. ‘교육’과

20) 연계성 관계 논의 정윤철(2012), 위수광(2018) 등 참조.

21) 이른바 ‘과학성원칙’은 국제 중국어교육의 경험을 기반으로 이론과 실재를 결합하는 과학성과 전형성을 구비하였다. ‘실용성원칙’은 실제 교육 학습현황에 근거하여 꼭 필요한 내용을 취합하여 교육요목을 제정하였다. ‘적절성원칙’은 대중성, 보편성과 활용성을 높이는 목표로 초중등 및 사회일반인에게까지 다양한 대상을 포괄하여 학습의 난이도를 최대한 낮추고, 나아가 등급별 목표도 적절하게 조정하였다. 특히 ‘통용성원칙’은 CEFR 등 국제적으로 공인된 언어능력 기준을 참고하여 중국어지식뿐만 아니라 중국문화지식의 교육내용을 추가로 제시하였으며, ‘탄력성 및 융통성 원칙’은 실제 교육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요소 및 상호관계, 논리적인 순서와 일반적인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제시하였다. 国家汉语国际推广领导小组办公室, 『国际汉语教学通用课程大纲』, 北京语言大学出版社, 2014, 서문 참조.

‘평가’에 일치한 목적을 둔 國際大綱과 新HSK 두 기준은 수정과 보완도 궤를 같이 하면서 중국어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해 끊임없는 탐구를 수행하였다²²⁾.

『新HSK』는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다양한 중국어교육 요목의 중요한 참고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취업준비, 입학, 편입, 해외 연수생 선발, 장학생 선발, 졸업인증제 등 자격 기준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기업체에서도 취업 및 승진의 요건으로 되고 있으며 중국 국비 장학생 선발의 필수시험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중국어교육의 교육 설계²³⁾는 국가 차원의 교육과정으로 구현되어 있다. 교육과정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자 교실 교육의 자료, 내용이며, 평가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교육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도 중요한 지침이 된다. 현행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1997)을 기본적인 골격으로 하고 있으며, 2007, 2009, 2015년에 걸친 개정된 총론을 바탕으로 각 교과별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였다.

2) 중국어 교수요목 내용의 연계성

외국어교육의 구체적인 시행과정에서는 두 가지의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바로 ‘교육과정의 설계’와 ‘교수요목의 설계’이다. 교육과정은 교과목과 관련된 제반 과정을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이며, 교수요목(syllabus)은 그 중 평가를 제외한 것으로 주로 ‘내용’의 설계에 대한 개념이다.

22) 위의 총체적인 두 기준 외에도 국가한판(國家漢辦)이 제정한 대외한어 유학생 교학대강(『高等學校外國留學生漢語言專業教學大綱(2002)』) 또는 중장기 연수생을 위한 교학대강(『高等學校外國留學生漢語教學大綱,長期進修(2002)』)이 있다. 그리고 중국 대학의 학자의 기준으로 楊壽洲(1999)의 『對外漢語教學初級階段教學大綱』와 趙建華(1999)의 『對外漢語教學中高級階段功能大綱』 등이 있다.

23) “제2외국어과 교육과정”은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http://ncic.go.kr>)의 ‘우리나라 교육과정’이나 ‘교육과정 자료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발음, 어휘, 문법, 의사소통 표현²⁴⁾ 등 언어지식 교수요목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중국어1과 대학 교양중국어 교수요목을 비교함으로써 중등교육으로서의 중국어와 고등교육으로서의 대학 교양중국어 교육의 공통성을 통한 연계 가능성을 논의한다. 논의 방법은 2015년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6] 제2외국어 교육과정 중국어 I, 중국어 II²⁵⁾에 제시한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가. 내용 체계(251쪽)”를 기준으로 진행한다.

먼저 내용 체계 도표를 제시한다.

핵심 요소	내용	기능
발음 및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 표준 중국어의 발음 및 한어병음 • 한자(간화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음을 듣고 변별하기 • 발음을 듣고 의미 파악하기 • 발음을 듣고 따라 말하기 • 질문에 대답하기 • 상황에 맞게 말하기 •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기 • 읽고 의미 파악하기 • 읽고 대의 파악하기 • 발음을 듣고 받아쓰기 • 정보 채워 넣기 • 간단한 문장 쓰기 • 짧은 글 쓰기
어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에 필요한 어휘의 의미 * [별표 II]에 제시된 기본 어휘를 중심으로 400(800)개 내외의 낱말을 사용한다. 	
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어의 다양한 어순 • 기능어 및 상용 어휘의 용법 • 각종 구문 및 문장 간의 연결 * [별표 I]에 제시된 의사소통 기본 표현 및 [별표 II]에 제시된 기본 어휘표를 참고한다. 	
의사소통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교의 표현, 감정 및 의사 표현, 사실 및 정보 전달, 요구 및 승낙 표현, 생활 관련 표현 등 의사소통 능력을 효율적으로 기를 수 있는 내용 * [별표 I]에 제시된 의사소통 기본 표현을 참고한다. 	

24)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이 강조됨에 따라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항목은 중요한 교육항목이다. 문화항목은 각 교재마다 취사선택한 기준이 일치하지 않을뿐더러 교과서 본문 속에 녹여내고 있어 본고에서는 논의를 생략한다.

25) 도표안의 밑줄친 부분은 “중국어 I 내용체계”에 추가되는 것으로 중국어 II의 내용 체계에 해당한다.

핵심 요소	내용	기능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개관 • 언어 문화 • 생활 문화 • 예술 문화 • 전통 문화 <p>* 이 외에 인물, 지리, 역사, 자연 등도 다를 수 있다.</p> <p>* ‘중국어 I’의 내용에 준하되, 필요에 따라 심화된 내용을 다를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 상황에 적용하기 • 모둠 활동하기 • 체험하여 이해하기 • 상호 비교하기 • 조사하여 설명하기

① 발음 및 문자²⁶⁾ 내용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중국어 I, II의 발음교육의 핵심 내용은 “현대 중국어의 표준 발음 및 한어병음”이다. 교육과정의 네 가지 핵심 요소는 네 가지 언어기능과 연계하여 ‘기능’ 부분에 명시하였다. 11가지 기능 항목 가운데 “발음을 듣고 변별하기”(듣기), “발음을 듣고 따라 말하기”(말하기),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기”(읽기), “발음을 듣고 받아쓰기”(쓰기) 등 5가지 항목이 발음 교육과 관련된 것이다.

대학의 교양중국어도 마찬가지로 한어병음을 주제로 현대표준중국어의 발음교육을 진행한다. 교재를 활용한 발음교육은 교재마다 그 구성이나 한글 발음 표기여부 등 기술의 차이는 다소 상이할 수는 있으나, 고등학교 중국어 I의 발음 내용과 동일하다.

우선 성모 21개, 운모 36개의 분절음 음소와 기본성조 4개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성모와 운모, 성조로 구성된 음절을 중심으로 학습한다. 그리고 경성과 성조의 변화, “一, 不”의 음절의 성조변화, 兒化音, 어기조사 啊의 변이음 등 초분절음에 관한 내용들을 학습한다. 중국어입문의 첫 시작인 “你好!”, “你好嗎?” 인사말을 통하여 발음교육은 어휘와 문법, 문화, 의사소통 표현 등 네 가지 언어기능 속에 투영되어 반복적

26) 간화자를 포함한 문자의 내용은 모든 과정이 동일하므로 본고에서는 기술을 생략한다.

으로 진행한다.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은 문장의 구성에서 더 구현된다. 실제 중국어를 말할 때 말소리는 음소 단위와 음절 단위를 연속하여 발화하기 때문에 음절들이 연이어지면 자연스럽게 동화, 이화, 약화, 축약, 첨가, 탈락 등과 같은 음운변화 현상이 발생하며, 중·고급 단계에서는 강세, 억양, 휴지 등과 같은 운율 자질들까지 수반한다. 때문에 대학과 고등학교의 중국어 발음교육의 현장에서는 개개 음소의 정확한 발음(교육)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발화 목표인 연속발화 단위의 발화 교육을 모두 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② 어휘 내용

新HSK의 어휘목록의 경우 CEFR의 등급 분류 6개의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익숙한 일상적 표현들과 아주 간단한 문장들,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신상에 관하여(예를 들어 어디에 사는지,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신상, 가족, 물건 사기, 업무, 가까운 주변 지역에 관한 정보 등) 간단하게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직접적인 정보교환으로서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초적 언어사용”²⁷⁾ 단계인 1급과 2급(A1, A2)이 대략적으로 고등학교 어휘에 해당한다.

중국어 I에는 400개, 중국어 II에는 800개 내외의 어휘를 학습하도록 제시되어 있다²⁸⁾. 배은영(2014)에서는 2014년 출간 기준 고등학교 중국어 I 교과서 5종²⁹⁾에 출현한 ‘교육용 기본어휘’³⁰⁾ 450~470개와 『新HSK』의 1-3급 어휘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약 70% 이상에 해당하는 어휘가 2009개정 교육과정과 일치한 것으로 통계되었다³¹⁾. 이러한 범위는 현재 중국의 대외한어 교재와 평가 시험 어휘의 기준이 되는 『新漢語水平考試大綱』에서 1~3급 어휘에 해당되는 450개~500개 내외

27) 정윤철(2013:169) 참고.

28) 교육과학기술부(2011). 「제2외국어과 교육과정」. 별책 16, 제2011-361호.

와 비슷한 수준이다.

대학 교양중국어 교육용 어휘는 일상생활과 일반적인 화제에 관한 비교적 쉽고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와 중국인의 생활 및 문화에 관하여 폭넓게 이해하는 목표로 학생들의 흥미, 필요, 지적 수준, 실용성 등을 고려한 대화체 및 서술체 어휘로 된 점이 특징이다. 최연주(2012:25)는 현재 13개 대학의 기초 단계의 교양중국어 교재에 수록된 어휘량이 400개미만으로 고등학교 교육용 어휘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한다.³²⁾ 고등학교의 어휘 학습량이 대학의 우위에 있는 현상은 양 집단의 학습 연결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문법 내용

전통적으로 제2외국어 교육내용에서 문법 항목은 학습자나 교수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여타의 제2외국어 과목처럼 중국어 문법 영역의 정확한 지침이 명시되지 않고, “의사소통 기본표현”과 “기본 어휘”를 통하여 문법을 이해하게끔 되어 있다. 따라서 각 교재 별로 문법항목을 설정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등 통일된 기준이나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표1> 2009 개정 고등학교 <중국어 I> 5종 교과서 목록

분류	출판사	저자	교과서명
A	천재교육	신승희 외 5명	고등학교 중국어 I
B	시사중국어사	심형철 외 5명	고등학교 중국어 I
C	(주)다락원	정상률 외 4명	고등학교 중국어 I
D	(주)교학사	모해연 외 4명	고등학교 중국어 I
E	정진출판사	이종민 외 6명	고등학교 中國語 I

29) 고등학교 5종 교과서 목록

30) 배은영(2014:10)은 교육용 어휘를 기초어휘, 기본어휘, 상용어휘를 종합하여 “사용도가 높고 사용범위가 넓으며 조어력이 높은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31) 배은영(2015:82-97) 참조.

32) 연구대상은 중국 본토에서 출간되어 한국어로 번역 또는 편역된 교재를 포함하여 한양대, 고려대, 외국어대, 이화여대 등 대학의 자체 개발한 교재이다. 최연주(2012:25, 74) 참조.

그러나 한국인 학습자에게 적절한 중국어교육문법 체계 설계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박용진, 2007; 박혜원, 2010; 위수광, 2018 외 다수).

특히 위수광(2018)에서는 『國際大綱(語法: 2014)』과 『新HSK大綱(語法: 2015)』 양대 기준을 비교분석을 통하여 유사한 문법체계로 상호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세부 문법항목 및 등급 배열에 대한 문제점과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한국인 학습자의 특징을 반영하는 이러한 문법체계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을 비롯한 성인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를 위한 통용성을 지닌 교육문법요목이 될 것이다.

본고는 위수광(2014)³³⁾에서 제시한 한국인 학습자에게 적절한 의사소통 중심의 문법항목(표현문법)을 중심으로 대학 교양중국어와 고등학교 교재에 나타나는 문법항목들을 정리해본다.

품사는 대체로 일반명사, 방위명사, 시간명사 등을 포함한 명사로 구성하고, 대(명)사에는 인칭대사, 의문대사, 지시대사들이 출현하며, 동사에는 일반동사, 동사중첩, 조동사로 구성되어 있다. 형용사에는 일반형용사, 형용사중첩, 수사에는 기본수, 서수, 어림수, 분수, 백분율, 배수, 소수, 양사에는 명량사, 동량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부사에는 부정부사, 시간부사, 범위부사, 정도부사, 빈도부사, 상태부사 등이 포함되었다. 그 외 전치사, 접속사, 그리고 구조조사, 동태조사, 어기조사 등 다양한 조사들이 포함되었다.

문장의 유형은 술어의 성질에 따라 분류한 동사술어문, 형용사술어문, 명사술어문, 주술술어문이 선후로 배치되어 있고, 문장의 용도에 의한 분류로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을 소개하고 일반의문문, 특

33) 위수광(2014)에서는 전체 6등급 체계로 구성하였지만 본고에서는 1,2,3등급의 문법항목들을 참고하였다. 위수광(2014:387-397)에서는 한국인학습자의 특징이 반영된 『중·고등학교 중국어요목』과 한국인 학습자 요구분석을 반영한 임승규(2010)의 화제 등급별 참조기준 등에서 제시된 의사소통항목과 화제의 문법항목을 『國際大綱(語法: 2014), 附錄2, 漢語教學話題及內容舉例表』에 나타난 예문들을 찾아서 문법항목을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수의문문, 선택의문문, 정반의문문 등 의문문 4가지 형식을 반복 학습 하도록 배열하였다. 특수문형으로 是字句, 有字句, 把字句도 난이도 별로 순차적으로 배열하고 비교문, 존재문, 그리고 완성태, 지속태, 진행태, 경험태를 나타내는 동작의 태와 명사구, 동사구, 형용사구 등 단어의 조합 또한 적절하게 배열하고 있다. 주어, 술어, 목적어, 부사어, 관형어 등 기본적인 쉬운 문장성분에서 복잡한 의미를 나타내는 정도보어, 수량보어, 방향보어, 결과보어, 가능보어 등 보어의 유형들까지 망라하여 난이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포함시켰다.

④ 의사소통 표현

중국어 교육의 최종 목표가 ‘학습자의 중국어 의사소통능력 향상이 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확고하다. 의사소통 표현항목은 듣기, 말하기 기능이나 어휘, 문법항목과 마찬가지로 중국어학습 전 과정에 종합적으로 내재되어 있으며, 모든 학습과정에서 강조하는 핵심요소이다. 따라서 고등학교 중국어 I, 중국어 II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에서는 의사소통 기본표현을 별표[1]로 자세하게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³⁴⁾.

여기서는 고등학교 중국어와 대학 교양중국어에 나타나는 전반적인 의사소통 표현 항목의 연계성 담론에 관한 선행연구와 실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위수광은(2014)에서 『國際大綱』과 『CEFR』, 그리고 『중고등학교 중국어 요목』의 의사소통 기능항목과 화제의 비교를 통하여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에게 적절한 의사소통 기능항목과 화제를 선정함으로써 그것의 연계성을 논의하였다. 논의결과 『國際大綱』과 『CEFR』와 한국 대학 교재의 초급단계에서의 의사소통 기능항목은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

34) 의사소통 기본 표현에는 1. 사교의 표현, 2. 감정 및 의사 표현, 3. 사실 및 정보 전달, 4. 요구 및 승낙 표현, 5. 생활 관련 표현 등 5개의 큰 범주 아래 36개 기능항목을 제하였다.

서 필요한 표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상호 연계성을 갖고, “인사, 신상, 가족, 업무, 학교생활” 등 2-3급에 나타나는 화제도 모두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위수광, 2014:199).

최현미(2017:183, 185)에서는 위수광(2014)이 제시한 상기 기준을 토대로 하여 한국과 중국에서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통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회화 교재 『신공략 중국어』³⁵⁾ 초급단계의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의사소통 기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초편’ 교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의사소통기능 항목은 총 22개이고 ‘초급편’에서는 ‘기초편’에 비해 17개의 의사소통기능항목이 증가한 총 39개의 의사소통기능항목이 다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임승규(2010:253-254)에서 실시한 한국인 중국어학습자 요구분석을 바탕으로 제안한 10개 범주, 44개 기능항목으로 구성된 “초급 중국어 의사소통 기능 교육요목 기초자료”는 기존의 구성내용이나 기능 범주를 단방향에서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 영역이 더 넓어졌다.

요컨대, 고등학교 중국어교육과정에서 “의사소통 표현” 영역은 어휘, 문법 문화 등 모든 학습과정을 관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 요소와도 결합되어 있고 현대적 문화 요소까지 가미한 융통성 있는 수업으로 직결되어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 표현의 활용범위는 대학의 교양중국어 교육과정이나 『國際大綱』, 『CEFR』과도 일맥상통하다.

I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본 연구는 고등학교 중국어와 대학 교양중국어 교육의 현주소 분석을 통하여 평생교육의 이론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미

35) 변형욱 등 편역(2005, 다락원) 신공략중국어 기초편, 초급편은 북경어언대학교 출판사의 ‘한어구어속성(汉语口语速成)’ 교재의 한국어판으로 한국에서 판매 및 사용량이 높은 교재이다.

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두 영역 간 연계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당위성 및 실행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아래의 제언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대학교육이 고등학교와 상호 연계성의 부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중·고등학교 등 공교육 교육기관에서 선행된 교육과정의 전문지식을 평생교육의 과정으로 인정하는 절차로 이행함으로써 대입 입학전형에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까지 반영하여 연계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평생교육제도에 기반을 둔 본고의 담론이 고등학교 중국어 교육의 수업시수 및 학점인정으로 이어져 대학에서의 중복 수업의 비효율성 문제를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인터넷 네티즌들을 위한 학습용 매체의 공유와 제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중국어 교육은 단순 외국어교육 과정의 문제가 아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지속적인 새로운 융복합 교수학습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시대 미래 지향적인 담론을 통한 본 연구가 한국 대학 교양중국어 교육을 전담하는 ‘온라인 기반의 교육 시스템’을 형성하고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온-오프 블렌디드 방식의 운영을 선도하며 학습 플랫폼 구축과 시스템을 통한 학사 운영 및 관리 지원을 통합하여 교육 시스템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한다.

외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내세우는 구호는 세계화, 국제화이다. 세계화 국제화란 외국어 교육이 단지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으로 서만이 아니라 타문화를 이해하고 인간의 사유의 폭을 확장시키며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서로 어울리고 공존하여 평화를 일궈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제2외국어에 대한 요구와 필요는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증대될 것이며, 이러한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교육 혁신이 답일 것이다. 본 연구의 담론이 대입 수능평가 제도의 개선 등 교육정책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1), 『제2외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별책 16].
-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http://ncic.go.kr>
- 김규진(2012), 『한국에서의 어린이 중국어 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선아(2014), 「대학 교양중국어 활성화를 위한 제요건」 『인문학연구』, 47권,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김현철(2018), 「한국의 중국어 열풍과 ‘중국어꿈’ 그리고 ‘한국어꿈」, 『2018年韓國中國學研究與漢語教學國際學術大會及在韓中國教授學會第19次全體會議』 자료집.
- 김현철·임연정(2010), 「중국어 교재의 출판 현황 및 교육이론 분석」 『중국어문학논집』, 제64호.
- 박용진(2007), 「현대중국어의 교육문법과 이론문법의 특징과 영역 고찰-교육문법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제47집.
- 박혜원(2010), 『대학 교양중국어 수업 활성화 방안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배은영(2015), 『2009개정 고등학교 중국어1 교과서 어휘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2007), 『교육학 용어 사전』, 서울 하우동설
- 위수광 (2014), 「중국어 교육요목의 의사소통 기능항목 및 화제 선정 -한국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중국어언어연구』 제50권.
- 위수광, 이길연 (2018), 「중국어교육문법체계 마련을 위한 考察 —『国际大纲(2014)』과 『新HSK大纲(2015)』의 비교를 중심으로」, 『중국학』 제64권.
- 이지연(2015), 「대학 교양중국어 수업방안 연구」 『중국어교육과 연구』, 제21호, 한국중국어교육학회.

- 임승규(2010), 「고등학교중국어교육을 위한 의사소통 기능 학습자 요구 분석 및 교수요목 기초자료 연구」 『중국어언어연구』, 제31호.
- 정운철(2013), 「중국어 어휘요목의 설계 기준에 관한 고찰」, 『중국문학연구』 제51집.
- 조항근(2014), 「일반 고등학교 중국어교육 현장의 실태분석거과 개선에 대한 제언 - 2009 개정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외국학연구』 제29집 - 고등학교 목소리와 문제점 서론에 반영.
- 최주연(2012), 『의사소통 교육을 위한 대학 교양중국어 교재 비교 분석』,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현미(2017), 「의사소통기능을 기반으로 한 중국어 회화교재 시리즈 분석 및 교육적 제언」, 『중국학보』 제81권.
- EBS TV 2015.10.26. 『혁신을 가르치는 온라인 대학 ‘미네르바스쿨’』
- EBS TV 2018.2.4. 『대학교육의 미래』
- EBS TV 2019.1.7, 『디지털 네이티브의 학교를 열다』
- 国家汉语国际推广领导小组办公室(2008, 2014), 『国际汉语教学通用课程大纲』,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 ABSTRACT

Discussion of a Connection System Between
College General Mandarin Course and
Future-oriented High School Public Education

Lee, Young-wol
Kyung Hee University

In the face of this digital revolution era, our society is profoundly impacted by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the intermediate stage in which the senior high school credit system could be associated with, the necessity of an online education system has been increasingly emerging. The connectivity between the intermediate stage and higher education, and the educational gap have become serious problems. With the right combina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effort from all sectors of society, the field of education also has been continually having discussions about the new education of human resources and calling for innovative changes in public education as well. Thus, this paper investigated how the collage general Mandarin courses and the Mandarin public education as the second foreign language in senior high school are realized. Additionally, by the principles of lifelong education and the future-oriented perspectiv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is paper proposes the necessity and appropriateness of constructing a connection system between various fields, and a practical project as well.

Key Words :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llage general
Mandarin course, teaching method, senior high school
Mandarin course, connection of public education

■ 논문접수일 : 2020. 08. 10

■ 심사완료일 : 2020. 09. 13

■ 게재확정일 : 2020. 09. 14